



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
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
으로 보내 주십시오.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
쭈어 응답해 드립니다.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.
다. <글책임: 편집자> ● 보낼곳: 우 110-170 서울시 중로
구 견지동 110-33 현대불교신문사 '길을 묻는 이에게' 담
당자 알 ● 인터넷: www.hanmaum.org 또는 한마음 선원 ●
FAX: (031)470-3116

길을 묻는 이에게

현대불교 제476호

서기 2004년 6월 2일
(음력 4월 15일) 수요일

17

법공양 페이지

내 한생각이 우주법계에 직결돼 있다!

여러분! 이 여름 나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겠습
니다. 그러나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덩고
추운 것을 놓으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
그뿐이 아니라 놓고 낮고, 크고 작고, 여자 남자,
동서남북 모두가 틀이 아니라고요. 우리가 이 공
부 해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로 이끌어가는 사람
들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따라오는 여러분의 마
음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. 물론 모두가 천차만별
로 다릅니다.

우리가 살아나가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
더 병고가 많은 거 같고, 요새는 병원에서도 고
치 못하는 게 많은가 하면 사고가 나서 다리가
부러졌다거나 어디가 깨졌다거나 이러한 문제라
면 병원엘 아주 재작 가야 하겠지만 여러분이 조
심해야 할 것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일을 가서
오혀려 끊어 부스럼을 만들어 놓는 일이지요. 아마
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. 그래서 '병원에 아무리 가
서 해봤던들 어차피 죽을 거러면 구태여 몇 달 더
살면 될 것이고 몇 살면 될 하나.' 하는 그 믿음으로
쳐 자기 자신을, 자기 마음의 주인을 투철히 믿고
거기에 맡겨 놓는 데에 묘법이 있다고 봅니다.

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나가는 데도 고통
이 많은데, 병고에 휘달리고 또는 자녀들을 키우
는 데 휘달리고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휘달리고
사람 살 길이 참, 얼마나 천차만별로 고가 많은지
모르겠습니다. 또 이름이 위대하고 돈이 많다고
해서 고가 없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. 그렇게 된
다면 더욱 더 큰 괴로움이 있는 집들이 허다 많게
됩니다. 그러나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
내 아집과 아상과 또는 욕심과 착, 이런 거를 다
버리신다면, 그리고고 놓고 맡겨서 모든 사람의
마음에 밝게 한마음의 등이 켜지게끔 한다면, 자
녀들도 이타를 안 할 것이요, 지금 젊은 사람들이
내놓는 그 새싹들도 역시 뿌리가 튼튼하고 상성
하게 자라날 것입니다.

그대로 묵묵히 걸어가면서 한발 한발 실천하는 데에 게으름이 없어야 합니다

마음,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
릅니다. 이 마음이 말입니다. 여러분이 한생각 내
서 악으로 가느냐 또는 한생각 잘 해서 선으로 가
느냐는 문제입니다.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
러분 속에 들어 있는 그 인력된 사실과, 팔자 운명이
라는 것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발짝도 벗어
날 수 없다는 그 점을 여러분한테 수차례적으로 말
씀드렸을 것입니다.

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명이니 팔자니 이렇게 말
을 하는데, 여러분이 저질러 놓고 "그건 운명이야,
죽는 것도 운명!" 이러죠. 그러나 그 운명이라는,
팔자라는 그 말이 말입니다. 어찌구무이 여러분
이 저질러 놓고 당하는 것을 그냥 위안이라도 할
양으로 "그게 운명이야" 하는 거지, 그 운명이라
는 이름이 사람한테 다 붙어 있겠니까? 누가 빼
앗아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갖다주는 것도 아닌데
다가 우리의 마음으로써 구성해서 자유히 살 수
있고 멋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인데
말입니다. 지난번에도 얘기했죠. 지수화풍이 비당
으로 돼 있어서 광력이나 전력 · 자력 · 통신력이
바로 재료로 갖춰져 있고, 여러분이 능히 오신통을
굴릴 수 있는 재료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. 그러는
미리 말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라고 믿고요.

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내 몸
안에서 이타를 하고 또 가정에서 점프해서 나갈
수 있는, 그 감옥 아닌 감옥 속에서 벗어날 수 있
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. 물론 중요하
다고 생각하고 지금 배우시지만, 이 마음 하나가
우주를 조절하고 이 세상을 조절하고 평화 문제
또는 남북통일 문제와 수많은 청소년들 문제를
조절하고, 정치하는 사람들과 과학자들을 조절해
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하게, 마음의 등불을 켜
준다면 우리는 모두를 건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
다. 또 우리 조그마한 나라에도 아주 새 빛으로써
역력하게 역사를 이끌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
앞에 아마도 주어질 것입니다.

그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일 걸러 두 일 건

너, 한생각에 바로, 여러분 한생각이 우주 법계에
직결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
다. 여러분이 아는 것은 먼 사람이 아무도 몰라도
우주간 법계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. 하다못해 풀
한 포기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고
계십니다.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.

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, 요즘은 인구가
너무 많이 팽창됨으로써 생기는 병들, 우리 마음들
이 산란함으로써 그 혼백, 즉 영(靈)이라고 한다면
보이지 않는 세균과 영계성이 너무도 많이 꼭 찢
고나 할까요? 그럼으로써 알지 못하는 병 증세들이
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집이 빈
까닭에 그저 빈집을 왔다 갔다, 들어갔다 나갔다 해
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나
간다면 우리나라가 어떻
게 되며 우리 가정이 어
떻게 되며, 앞으로 자라나
는 새싹들은 어떻게 되며
우리 지구는 또 어떻게
될 것입니까? 여러분이
주인이 있어서 조절할 수
있는, 모든 것을 대처할
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다
면 여러분의 한생각에 우
주 법계를 올릴 수도 있고
웃길 수도 있을 텐데
말입니다.

이걸 보름 마음 공부라
고 가법계 생각하지 마십
시오. 내가 이런 말 한마
디 할 때에 여러분이 미쳤
다고 하거나 또는 옛날에
소크라테스나 달마 대사
같은 사람들, 약사발을 안
겨서 죽일 정도로 지금 그
말치는 않기 때문에 한마
디 하겠는데, 우리가 이
공부가 중요하다는 그 점,
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하
는데 중요한 점은 우리 지
구라는 혹성이 아니라 이
만 이 세상의 모든 걸 조
절해나가는 일, 세계평화
도 바로 우리 마음의 조절
이라는 사실입니다.

지구의 수명도 우리의
마음에 달려 있고, 당장
부딪치는 자연 문제, 즉
말하자면 인구가 팽창됨
으로써 우리 지구의 자
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
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
한테 달렸다고 봅니다.
그러나 그뿐입니까? 바
로 인구의 팽창도 여
러분의 마음의 조절에 달
려 있다고 봅니다. 우주
간 법계에서 모두 한마
음으로써 직결되어 있기
때문에 그것을 우주간
법계라고 합니다.

그러면 불(佛)이라는 것은 무엇인가. 불이라는
것은 그대로 영원히 변함없이 흘러 도는 불덩어
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. 영원한 자기의, 자전할
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불성이 바로 그러한 능력
으로 충만하기에 우리 마음들이 자전하고 생각하
면 그것이 바로 법계의 법바퀴가 되는 것이죠. 여
러분 몸 안에서 벗어나서 법바퀴를, 우주 전체 법
계를 두루 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세
상을 창조하고도 남음이 있어 과학자들이 할 수 없
는 그런 일도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
들이 되실 겁니다. 물론 과학자도 무시할 수는 없
겠죠.

그것은 부처님 당시에 말씀해 놓으신 거나 지
금 우리가 하고 가는 거나 증명해줄 수 있는 여
건은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무엇이
쓸 것인가,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
고 또는 나라를 이워서 정치도 하고 고무를 하고
가시는데, 나한테 주어진 여건이 있어야만 율기
가 나고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여건이 충만
하게 드는 겁니다.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

할 때에는 아예 그냥 여건이 주어지지 않죠. 그리고
힘도 빠집니다.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지금 마
음공부를 해서 무엇이 쓸 것인가, 첫째는 나로부
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실천을, 즉 내 몸속에 있
는 그 의식, 마음들을 한마음으로 통쳐서 요리할
것, 둘째, 우리를 한다면 바깥으로 남을 이익하게
전부 조절할 것, 셋째, 우리가 마음이 충만한다면
어떠한 것이든지,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여
건들이 모두가 내가 돼서, 즉 가고 올이 없이 나
름으로써 바로 내가 되어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여
건이 되기 때문에 세계평화도 가져올 수 있는 것
입니다. 그러한 여건과 더불어 이 우주의 근본이
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우주
도 조절할 수가 있죠. 우리 지구에만 생명이 살고



그림 · 최추연

자기 마음의 주인을 투철히 믿고 거기에 맡겨 놓는 데 묘법이 있어

있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.

여러분이 열심히 이 마음공부 하는 것은 우주
삼천대천세계를 꿰뚫어보고 조절하기 위해서라
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꿰뚫어본다 해도 부처님
계신 도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. 왜냐하면 보기
만 하면 될 합니까? 내가 실질적으로 행하지 못하
는데, 내가 집어먹을 수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있어
야만 이 그것이 도지, 어찌 보기만 하는데 도라고
하겠느냐는 얘깁니다. 가고 올 수 있어도 도가 아
니니까. 또는 남의 속을 뻔히 안다 하더라도 그것
은 안다고 말할 건데 못 되니까, 즉 과거에
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
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 못 되니까는 얘깁니다.

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묵묵히 걸어가면서 한 발
한 발 실천을 하는 데에 게으름이 없어야 합니다. 그
야말로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써, 아집을 갖지 않
는 마음으로써, 또 관습을 갖지 않음으로써, 우린 통
틀어 내놓고 싶으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그런 마음
으로 실천을 해야죠. 첫째, 그것이 역시 내가 아님이
없는, 내 발 아님이 없는 평발이라는 그 사실을 여
러분이 들어서도 아시겠죠. 발이 맛있게 평등해서

평발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느 별래의 발 하나라도
내 발 아님이 없기 때문에 평발이라고 했죠.

여러분은 '이 마음공부를 해서 어디 써먹을 것
인가?' 또는 '마음공부가 도대체 무엇인가?' 이렇
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고, '그저 왔다 갔다 하다가
병이나 나오면 고만이지,' 이런 정도라면 공부를
하신다면 병 자체도 못 고치거나와 여러분 몸통이
속에 있는 중생들도 제도 못할 것입니다. 그전에
도 얘기했지만 과학이다 뭐다 하지마는 원자에서
그렇게 입자가 많아서 분자로 화(化)해서 수없이
대기권을 지키고 나가는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
거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.

모르시더라도 잘 생각해두십시오. 모르는 게 약
이라고 하지만, 어떤 때는 모르는 게 약이지만 그
건 설 알아서 그렇습니다.
진짜 안다면 아는 것이 약
이지 어찌 모르는 것이 약
이겠습니까? 때에 따라서는
알아도 모르는 것은 자기가
모르기 때문에 팔자 운명을
자초하는 것이죠. 죄가 있다
면 모르는 게 죄지, 죄는 없
습니다. 불을 자라도 없고
운명도 팔자도 불을 자리
않습니다. 이거 엉터리로 주
워 모아서 막 말을 한다가
해서 여러분이 체계를 세우
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
다면 안 됩니다.

그래서 마음공부라는 것
이 이렇게 값비싼 건 줄 몰
랐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십
시오. 마음공부라는 것은 우
리 마음이 물러가 터져서
우주간 법계와 더불어 깨미
한 마라도 따로 없이 돌아
간다면 그야말로 어마어마
한 것입니다. 여러분은 이
마음이 얼마나 기묘하고 보
배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.
지금 보십시오. 별성이 얼마
나 많은가. 헤아릴 수 없지
않습니까? 우리 인구는 참,
나라마다 조절할 수 있고
"몇이나? 몇억이나?" 이렇
게 말할 수 있겠지만, 지금
별성이나 혹성이 얼마나 많
은지는 헤아릴 수도 없을
것입니다. 그런데 지금 우리
관내에 있는 혹성만 하더라도
지금 아홉 개니 열 개니
이렇게 따로 태양을 끼고
돌아간다고 합니다.

그런데 지금 지구에만 이
렇게 생명이 살고 움직여
다니는 건 아닙니다. 여러분,
잘 아셔야 합니다. 내가 나
이 젊었을 때 얘깁니다. 6·25때 집시비행기를 봤
습니다. 그때는 여기서도 봤다 저기서도 봤다
단들이었습니다. 여기서 저기 내려다보이는, 저
아래 내려다보이는 데까지 않은 걸 봤습니다. 여
자로 보이는데 여자 하나를 들뜬 안다나만 그러로
태우고선, 그 양쪽에 모두 고슴도치 같은 것도 있
습니다. 얼마 크지도 않은 것이 밑으로다가 활력
뭐가 내려오니까 그냥 그러로 머리만 이렇게 수그
리니까 그냥 올라가고 있어요. 그런 거를 똑똑히
저 아래 뜰에서 봤거든요.

그때도 나는 그때는 그 생각을 못하고, '아휴!
지금 싸움이 벌어졌으니 저런 비행기도 있구나'
이렇게 생각했죠. 그때는 영 몰랐습니다. 그러곤
그냥 가까이 알게 떠서 반박반박하면서 자유자재
하는데 '아! 저런 비행기가 있으니 우리가 쫓 수
밖에!' 이렇게 생각했죠.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
입니다. 그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, 그러나 여러분,
우리 지구에만 사람이 산다고는 절대 못합니다.
그리고 뜨거워서 생명이 없고 차서 생명이 없고
그런 것은 아닙니다.

또 한 가지 얘기는 우리가 마음공부를 해서 어

디다 쓸 것이나 하시지마는 우리 불종(佛種)을 참
'선의 불종' 이 자체는 이 '악의 불종' 의 무리를
없애기 위한이요, 또는 '악의 불종' 을 없앤으로써
우리 각 금성이나 토성 같은 데도 생명의 존재가
살 수 있게, 움직여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여
러분은 그렇게 중요시 안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
이 그렇게,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넓하면 크고
좁하면 작고, 고무줄 인생이라고 하죠. 그래서, 이
고무줄 같은 마음을 좀더 우리가 개발해서, 정신
계로 발전을 해서 개발을 한다면, 우리가 지금 그
러한 문제들도 잘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 '악의
종' 에 '선의 종' 이 딱 거기에 입력이 된다면, 그것
이 스스로서 착해지고 그 모습을 아주 밝게, 자력
과 광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것이라는 얘깁니
다. 믿어지지 않으시죠? 믿어지지 않아도 앞으로
믿어지게끔 될 겁니다. 아마도 이것이 증명되려
면 한 백 년 거리는 두어야죠.

그러나 그 작업이 뭐가 문제냐 하면 악종, 잡들
어 있는 악종을 우리가 바로 선종으로 깨닫게 해
줘야만 이 그것을, 말하자면 모든 일은 조건이나
뜨거운 조건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과학적
으로는 이것이 증명도 안 되거나와 그러나 이전
엄청난 문제라고 봅니다. 이전 자동적인 풀가 테
없는 진리 속에서 우리가 화합을 하고, 모두의 마
음이 같이 동조하고 같이 이룩해야 한다는 문
제를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죠. 우리가 이런 공부를
많이 해야 첫째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절대로 죽
지 않습니다. 나쁘게 될 일이 없죠.

그때에 집시비행기를 볼 때, 그때는 몰랐는데 그
후에 생각을 하나 '아, 저런 사람은, 저런 비행기
를 움직여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예나지가 많아서 우
리들이 법점을 못하게끔 돼 있다.' 이런 생각이 들
었습니다. 우리는 지금 인구가 많아지는 반면에 자
원이 부족해지고 능력이 손상되고, 정신을 빼기고
이라는 수가 많습니다. 혼을 빼기는 수도 많고요.
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집주인이 없다면 여러분은
다른 세계에 혼을 악으로 뺏길 수도 있죠. 선은 빼
앗아가고 빼앗아오고 하는 것 없이 여러분에게 생
능을 더 넣어주려고 애를 쓰지만, 악으로써 넣어주
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혼을 빼기 때문입니다. 악
으로써 존재한다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되며 지구는
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리고 또 태양은 어떻게 되
겠습니까? 또 태양이 끼고 돌 수 있는 그 별성들은,
그 생명들은 어떡하겠습니까? 우리의 생명과 똑같
습니다. 수명이 길고 짧을 뿐이지.

그러나 여러분이 그 마음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
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. 그러나 자신의 그런
마음 주인공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. 그러
면 지금 현실에 병고와 앓고 있는 사람마저도 해를
습니다. 가난한 사람도 해롭고, 어떠한 요건에 대해
서든가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으
니까요.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죠.

서산 대사는 왜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렸습니
까? 괜히 새를 죽이려고 그랬겠습니까? 아니죠.
공부시키느라고 학인들을 위해서 떨어뜨리기도
하고 계란을 거꾸로 쌓기도 하고 그랬죠. 그 계
란 지금 시대는 또 다릅니다. 우리는 보이는 데 계
란을 쌓고, 보이는 데 떨어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
라 한생각에 지금 우주를 한꺼번에 보고, 풀이가
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.

한쪽만 봐서도 아니 되죠. 우주복을 입고 지금
화성에도 가고, 달에도 가고, 많은 과학자들이 선
동을 해서 그렇게 가곤 했습니다. 인공위성을 띄워
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쓰고 다녔지만은, 그것은
우리들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게
전부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. 그런가 하면, 그것이
바로 보이지 않는 데 50%를 모르기 때문에, 보이
지 않는 데 마음들하고 접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
발견이 되지 않는 것이죠. 또 한쪽에만 가 봐서 아
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 지구에도 만약에 저 북극
이나 남극에 침투했다고 봅시다. 사람이 살아 있다
고, 산다고, 생명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
까? 우리 지구 안에든 모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.
북극을 따라서 해안을 쫓아서 섬이나 이런 데는
우리가 모르는 그런 문제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.

여러분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요가를 한
다 또 나는 명상을 한다, 또 단전을 한다 이러하면
그것은 여러분의 몸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데 뭐가
떨간 데 없이 남겠습니까? 내가 떨간 데 없는 도리

18면으로 계속

